

브랜드화된 패키지디자인 개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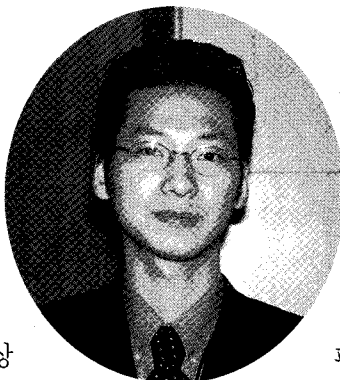
제 1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장학금 수상

강재도 /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4학년

“**치** 천해주셨다는 말씀을 교수님께 전해듣기는 했지만, 전국 대학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라며 수상소감을 대신해 큰 웃음을 짓는 강재도 군은 지난 해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한 PACKSTAR 대상을 수상해 낮이 익은 얼굴이다.

대학에 입학해 패키지디자인을 접하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마케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강재도 군은 올해 졸업반으로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브랜드패키지전공에 입학할 허가받은 상태이다. 대학 재학시절 패키지디자인을 접하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강재도 군이 졸업과 동시에 패키지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가장 최근의 동기는 지난 해 열린 APD SANGHAI '99를 참관하면서부터이다.

“APD SANGHAI '99에서 아시아 4개국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국내 패키지디자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강재도 군은 앞으로 제품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디자인,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를 차근차근 익혀나가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원에서의 전공을 브랜드 패키지로 선택한 강재도 군은 패키지디자인이 단순히 상품을 선전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을 막 벗어난 지금 또 한번의 도약을 맞고 있다면서, 그 도약을 넘어서면 패키지디자인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있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으로 브랜드화를 통해 패키지디자인의 상품화를 현실화하고 싶다는 강재도 군은 유명세를 타는 디자이너보다는 오랫동안 인정받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 강재도 군이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패키지디자이너로서 숨차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윤지은 기자